

여수 문화탐방 보고서

일시	2022.07.01	장소	여수 일대 (이순신광장, 벽화마을, 아쿠아플라넷 여수, 여수 해상 케이블카)
참석자	김혜원, 우서희, 조서현, 진선령		
탐방 개요	<p>여수 지역의 자원 활용 및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탐방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 엑스포 박람회를 개최했던 대전시와 여수시의 각각 엑스포 전시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전시와 다른 자연적 배경을 가진 여수시의 원도심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탐방하였다. 또한 다양한 해양 자원 및 문화 자원이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여수의 관광 및 체험 공간을 탐방하였다.</p> <p>탐방 순서: 중앙동 일대 (이순신 광장, 벽화마을 등) - 아쿠아플라넷 여수 (여수 엑스포장 일대) - 여수 해상케이블카</p>		
내용	<p>'여수'라는 지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자연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먼저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에 방문해보았다. '이순신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식 거리를 테마로 하여 활성화 중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안가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해산물을 비롯한 많은 퓨전 음식들이 거리에 가득했고 곳곳에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음식점 역시 눈에 띄었다. 여수엑스포역과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접근성 또한 큰 장점으로 보이며, 바로 옆에는 '낭만포차거리'를 조성하여 방문객의 발길을 모았다. 해안가라는 장점과 더불어 음식을 테마로 하여 포차 거리 및 음식 거리를 형성한 특징을 알 수 있었다.</p> <p>또한 근처 벽화마을 조성으로 마을 곳곳을 구경하며 여수의 전경을 볼 수 있었다. 벽화마을을 따라 올라가다가 보면 작은 전시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특별 전시를 하는 것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p> <p>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아쿠아플라넷 여수'이다. 엑스포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가는 길은 여수 엑스포가 열렸던 전시장을 통과하는 길이었는데 큰 조형물과 건물에 비해 그 안에 담긴 콘텐츠가 많이 부실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듯한 모습에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아쿠아플라넷은 여수시가 아니라 기업에서 운영되는 곳이기에 홀로 멀끔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방문객 역시 더운 날씨 때문인지 대부분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일단 여수 자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방문객의 소비 증가를 이끌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득이지만,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콘텐츠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아쿠아플라넷은 '오션라이프', '마린라이프', '아쿠아포리스트', '특별전시관'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서 마술공연이나 오션라이프 만찬 시간, 투명보트 체험 등 또 다른 세부적인 공연이 구성되어 볼거리가 가득했다. 체험활동과 다양한 생물 감상으로 여수라는 도시가 해양도시라는 생각을 각인할 수 있었다.</p> <p>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여수 해상 케이블카'이다.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라는 명목답게 케이블카를 타면서 여수의 바다 전경을 볼 수 있는 이곳은 가장 만족</p>		

	<p>스러우면서도 그만큼 더 아쉬운 곳이었다. 먼저 해안지대의 강점을 가장 살릴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케이블카 내부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음악을 들으며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이었다. 하지만 너무 좋은 배경을 두고 12분 내외의 케이블카 운행은 관광객 입장에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들었다. 더 긴 코스를 준비하거나 느린 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하지만 케이블카 운영 시 안내원이 주로 노인층인 것을 보면서 노인인구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p>느낀 점</p>	<p>첫 번째로 방문했던 '이순신 광장'은 중앙동 일대 원도심 지역으로 가장 관심 있게 관찰했던 공간이다.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하여 거북선 조형물과 관련 역사 사실을 기록한 공간은 다양한 목적으로 긍정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적인 학습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공간을 토대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며 사람들이 추억할만한 공간을 조성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광장 가까이 있는 '낭만포차거리' 역시 사람들의 발걸음을 원도심 지역으로 이끄는 것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위에 위치한 벽화 마을까지 공간에 있는 모든 요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p> <p>두 번째로 방문했던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많은 아쿠아플라넷이 있지만 여수 엑스포 옆에 위치하여 그 대비감을 더 실감하였다고 생각한다. 대전시에도 엑스포 공원이 있지만, 그곳에서 다양한 행사 또는 공원 자체를 활용하여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엑스포 공원 자리가 다른 건물로 대체되는 결과를 보았지만, 여수 엑스포장 역시 침체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아쿠아플라넷을 가기 전 지나간 전시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으며, '저곳을 들어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쿠아플라넷 앞에는 아직 휴가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있는 것을 보며 씩씩한 감정이 들기도 했다. 아쿠아플라넷은 많은 즐길 거리들이 있었다. 다양한 전시관과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보면서 여수에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공간이지만, 지역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점을 생각한다면 괜찮은 관광거리다.</p> <p>세 번째로 방문했던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이순신대교'부터 여수 10경이라고 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여수의 전경과 함께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다. 이번 탐방을 통해 느낀 점은 케이블카 설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관광객 입장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원거리의 두 지역에 위치한 지역민들에게 소비자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인 관광객 역시 관광의 요소와 더불어 먼 거리를 쉽게 이동하여 다양한 곳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콘텐츠라고 생각한다.</p> <p>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만약 콘텐츠를 구성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지, 그것을 구성하는 공간은 여수와 비슷한 공간일지 혹은 이곳의 아이디어를 내륙에 위치한 산촌이나 농촌 또는 침체된 도심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문화 탐방을 계기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경험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 도움이 되고 이용가능한, 또 실현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고민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굳건히 할 수 있었다.</p>

탐방 사진



